

醫療 倫理 배경 철학으로서의 三才 思想에 대한 研究

백진웅*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 Study on the SamJae Theory(三才思想) as a Philosophic Background of Medical Ethics

Jin-Ung Baek*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at the SamJae Theory(三才思想) was applied for a philosophic background of medical ethics. SamJae theory is not the system of three categories, which is unlike to the meaning of the word 'Sam(三)', but it is the system of two categories with 天(陽) and 地(陰) which are dividing all creations and phenomena in the universe into two. Nevertheless, the reason why we divide all the universal creations and phenomena into three, 天, 地 and 人, and also why we give a name 'SamJae' to this theory using the word 'Sam' meaning three, is to emphasize the human free volition that comes from the independent human life in the universe composed of 天(陽) and 地(陰). In other word, the core concept of SamJae theory is not 天(陽) and 地(陰) but 人 which symbolize the independent free volition of human.

Therefore, if we try to use SamJae theory as a philosophic background of medical ethics, we can establish a comprehensive theoretical system including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such as utilitarianism.

Key words : the SamJae Theory(三才思想), medical ethics, background philosophy, ethics

* Corresponding author : Jin-Ung Baek,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 Tel : 82-61-330-3514 Fax : 82-61-330-3519 E-mail : mukjagan@naver.com

I. 序 論

최근 들어 의학 및 생명 과학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에 시달리는 인류의 보건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긍정적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의학 및 생명 과학 분야의 빠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哲學的 기반, 즉 醫療 倫理가 정립되지 못해 갖가지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명복제에 관한 논쟁, 장기 이식에 관한 논쟁, 안락사에 관한 논쟁, 유전자 조작에 관한 논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새로운 의학 및 생명 과학 기술의 개발과 임상 적용을 지연시키므로 결국 인류의 보건 복지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로운 의학 및 생명 과학 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이를 뒷받침할 醫療 倫理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醫療 倫理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정립되어 발표된 醫療 倫理가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의사 倫理지침’을, 대한한 의사협회는 2005년 ‘한의사 倫理지침’을 발표했다. 또 1999년에는 ‘생명복제에 관한 생명 倫理 선언’이 발표되었다. 국외에서는 1992년 세계의사협회 주도로 ‘인간 게놈프로젝트에 대한 선언’이, 1998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이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선언하였다. 이외에도 醫療 倫理와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선언과 현장과 지침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醫療 倫理에 관한 발표들을 보면 일관된 하나의 哲學的 背景을 가지고, 그 背景 哲學에 근거하여 각종 醫療 倫理들이 體系化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그 당시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

여 醫療 倫理가 만들어져 왔다고 보는 편이 더 사실에 가깝다는 판단이 든다. 예를 들어 2006년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정 발표한 연구 倫理·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과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 논리에 맞게 급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사회적 통념과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 醫療 倫理를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背景 哲學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醫療 倫理가 정립된다면 당면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불거진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로운 醫療 倫理를 개발해 냄으로써 소모적 논쟁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의학 및 생명 과학 기술의 개발을 통한 인류 보건복지 향상은 최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사안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背景 哲學의 개발이 쉽지 않으며, 또 개발된 背景 哲學을 실제로 적용하여 醫療 倫理를 정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동안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사안의 해결책으로서의 醫療 倫理를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醫療 倫理 정립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背景 哲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전혀 새로운 哲學 體系의 개발을 시도하는 것보다 기존의 哲學 體系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醫療 倫理 정립에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또 서양이 의학과 생명 과학 분야를 선도함에 따라 醫療 倫理 정립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서양 哲學 思想이 주로 반영되어온 점과 그 결과로 여러 논쟁거리들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대안으로써 기존 哲學 體系 중에서도 특히 동양 哲學 思想 중에서 타당한 理論 體系를 선택하여 醫療 倫理의 배경 哲學으로 선정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저자는 다양한 동양 哲學 思想 중에서도 유학의 哲學的 지평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周易에 수록된 三才 思想을 첫 번째로 선택하여, 三才 思想이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醫療 倫理의 배경 哲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II. 本 論

1. 三才 思想

1) 周易에 수록된 三才 思想

三才 思想은 周易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三才란 단어가 周易 전체에 두루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象傳에 天道, 地道, 人道란 단어가 쓰였으나,¹⁾ 三才란 단어는 쓰이지 않다가 계사전과 설괘전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를 象傳보다 계사전과 설괘전이 더 후대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²⁾ 적용하여 해석해 볼 때, 세 가지 개념은 일찍부터 통용되었지만 이 세 가지를 합친 三才라는 개념은 보다 후대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³⁾

周易에서 三才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繫辭下傳 10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周易은 宇宙의 진리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책으로 三才인 天道와 人道와 地道를 두루 갖

추고 있다. 이 三才를 두 배로 확장하면 여섯이니, 周易 64卦의 爻가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三才의 道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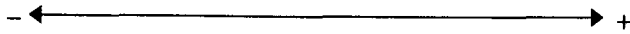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也.)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周易의 이치 즉 宇宙의 진리를 담고 있는 卦象에 三才 思想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결국 三才 思想이 宇宙의 진리를 밝히는 주요 哲學 思想임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수록된 繫辭下傳 10장을 三才에 대한 총론적 언급이 수록된 부분이라 한다면 說卦傳 2장은 三才, 즉 天道와 人道와 地道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수록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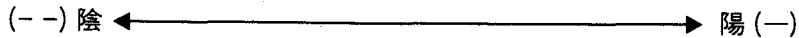
옛날 聖인이 周易을 지었는데, 이는 性과 命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하늘의 道를 정립하여 陰과 陽이라 이름 지었고, 땅의 道를 정립하여 柔와 剛이라 이름 지었고, 사람의 道를 정립하여 仁과 義라 이름 지었다. 이를 모두 아울러 三才라 하는데, 三才를 두 배로 확장하여 육획으로 64괘를 만들었다. 이처럼 陰과 陽을 분류하고 柔와 剛을 사용하는 등 三才 思想에 기반해 육획으로 64괘를 만들어야 비로소 卦象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⁵⁾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繫辭下傳 10장과 마찬가지로 三才 思想이 周易 64卦의 바탕에 내재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三才 思想에 근거해서 육획으로 卦를 구성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卦象이 성립됨을 분명하게



좌표 1. 일차원 수직선



좌표 2. 陰陽 수직선

밝히고 있다. 더불어 三才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天의 道인 陰陽은 無形的인 것을 주로 말하고 地의 道인 剛柔는 形態가 있는 것을 주로 말하고 사람의 道인 仁義는 天地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라 할 수 있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周易은 三才 思想이 宇宙의 진리를 표현한 64卦에 내재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三才 思想이 宇宙의 진리를 설명하는 주요 哲學 思想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三才 思想의 해석에 대한 著者の 假說

(1) 좌표로 살펴본 陰陽

陰陽은 비단 한의학 기초 理論 體系뿐 아니라 동양 哲學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논술이 매우 풍부하고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기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본 논문의 본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陰陽에 대한 저자의 주장만 서술하고자 한다.⁷⁾

「繫辭上傳 11章」에 ‘易有太極 是生兩儀’⁸⁾라는 구절이 있다. 太極은 最高無上의 本源을 가리키는데,⁹⁾ 本源이란 아무 것도 분리되지 않은 純一한 근본 상태를 의미한다. 兩儀란 天地 또

는 陰陽을 가리키는 것으로 宇宙의 大法이다.¹⁰⁾ 太極은 純一하므로 1範疇 體系 즉 範疇가 나뉘지 않는 개념이고, 兩儀는 ‘兩’이란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2範疇 體系다. 太極은 範疇를 나눌 수 없지만, 兩儀 즉 陰陽은 宇宙를 두 가지 範疇로 나누어 보는 體系인 것이다. 따라서 太極은 좌표로 나타낼 수 없지만 陰陽은 다음과 같은 일차원 좌표 즉 일차원 수직선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좌표 1은 수학에서 흔히 보는 일차원 수직선이고, 좌표 2는 -와 + 기호 대신 陰(--)과 陽(-)을 수직선 양끝에 써 놓은 것으로 著者가 陰陽 수직선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좌표 1과 좌표 2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일차원 수직선은 모든 實數가 -와 +의 두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일차원 수직선은 모든 實數를 -와 +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範疇 體系를 상징한다. 그리고 좌표 2의 陰陽 수직선은 宇宙 萬物과 現象이 陰(--)의인 것과 陽(-)의인 것의 두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陰陽 수직선은 宇宙 萬物과 現象을 陰(--)의인 것과 陽(-)의인 것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範疇 體系를 상징한다. 따라서 陰陽은 간단히 말해서 2範疇 體系, 혹은 일차원적 範疇 體系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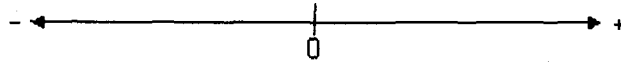
(2) 좌표로 살펴본 三才

앞에서 周易에 수록된 三才 思想에 대하여 알아볼 때, “天의 道인 陰陽은 無形的인 것을

주로 말하고 地의 道인 剛柔는 形態가 있는 것을 주로 말하고 사람의 道인 仁義는 天地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라 할 수 있다.”¹¹⁾ 라는 구절을 살펴본 적이 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을 약간 변형시키면 “天의 道는 無形的인 것을, 地의 道는 形態가 있는 것을 주로 말한다.”¹²⁾ 라고 바꿀 수 있는데, 이는 다시 “天의 道는 形而上學的인 것을, 地의 道는 形而下學的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꿀 수 있다. 이는 곧 天道는 形而上學的인 것을 포괄하는 範疇 집합의 이름이고, 地道는 形而下學的인 것을 포괄하는 範疇 집합의 이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範疇 집합의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陰과 陽이 날개의 원소인 것이 아니라 각각 陰의 속성과 陽의 속성을 가진 무수한 사물과 현상을 모두 포괄하는 範疇 집합의 이름인 것처럼 天道와 地道 역시 날개의 원소가 아니라 天道와 地道 내에 무수히 많은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이름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절대적 기준을 중시하는 西洋哲學과 달리 상대성을 중시하는 東洋哲學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볼 때 天道에 포함되는 形而上學的인 원소들과 地道에 포함되는 形而下學的인 원소들은 절대적 기준에 따라 天道와 地道에 배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天道와 地道에 배속되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비교하면 정신은 天道에 육체는 地道에 배속되지만, 육체와 강철을 비교하면 육체는 天道에 강철은 地道에 배속된다고 할 수 있다. 즉 形而上學的인 것은 天道에 形而下學的인 것은 地道에 속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되, 비교 대상이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形而上學的인 것은 天道에, 상대적으로 形而下學的인 것은 地道에 배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人道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본 항목의 맨 위에서 언급한 구절의 뒷부분을

보면 “사람의 道인 인의는 天地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을 약간 변형시키면 “사람의 道는 天地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라 할 수 있다.”¹³⁾라고 바꿀 수 있는데, 이는 곧 人道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들을 원소로 하는 範疇 집합의 이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 무엇인지만 밝히면 人道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周易의 三才에서 제시된 인간상은 천지의 어느 한 편에 귀속된 장식품이 아니라 천지의 기운을 감싸 안고 살아가는 宇宙의 인격적 주체성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¹⁴⁾라는 구절이 있다. 즉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란 유교에서 말하는 仁義禮智信이나 기타 종교 및 思想體系에서 말하는 특정 덕목이 아니라 ‘天道와 地道, 즉 形而上學的인 것과 形而下學的인 것으로 이루어진 宇宙를 살아가는 인간이 상황에 따라 어떤 가치 體系나 행동 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天道와 地道가 날개의 원소인 것이 아니라 각각 天道와 地道 내에 무수히 많은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이름인 것처럼 人道 역시 人道의 속성을 가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範疇 집합의 이름이다. 다만 人道란 단 한 가지 원소, 즉 “天道와 地道로 이루어진 宇宙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원소로 하는 範疇 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선 안 될 점은 人道를 天道나 地道와 동인 선상의 範疇 집합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宇宙 萬物과 現象은 天道와 地道라는 두 가지 範疇로 나뉘며, 人道는 이 두 範疇를 분류하고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자면 人道가 天



좌표 3. 중점을 표시한 일차원 수직선



좌표 4. 三才 수직선

道와 地道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를 좌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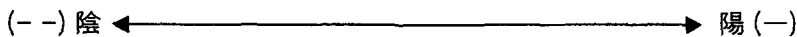
좌표 3은 수학에서 흔히 보는 일차원 수직선 중 중점을 표시한 것이고, 좌표 4는 -와 + 기호 대신 地와 天을 수직선 양끝에 써 놓고 중점 자리에 人을 써 넣은 것으로 著者が 三才 수직선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좌표 3과 좌표 4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점을 표시한 일차원 수직선은 모든 實數가 -와 +의 두 종류로 나뉘고 그 기준이 0 임을 나타낸다. 즉 중점을 표시한 일차원 수직선은 중점을 기준으로 모든 實數를 -와 +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範疇 體系를 상징한다. 그리고 좌표 4의 三才 수직선은 宇宙 萬物과 現象이 形而上學的인 것(天)과 形而下學的인 것(地)의 두 종류로 나뉘고 그 기준이 人임을 나타낸다. 즉 三才 수직선은 주체적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宇宙 萬物과 現象을 形而上學的인 것(天)과 形而下學的인 것(地)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三才란 간단히 말해서 천과 지의 2範

疇 體系에 중심인 人이 포함되어 있는 體系라 할 수 있다.

(3) 좌표로 살펴본 陰陽과 三才의 관계

陽은 상대적으로 形而上學的인 원소들을 포함하는 範疇 집합이고 陰은 상대적으로 形而下學的인 원소들을 포함하는 範疇 집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陰과 陽은 天道와 地道의 體系와 유사한 範疇 體系라 할 수 있다. 하지만 天道와 地道로 나뉘는 範疇 體系와 陰과 陽으로 나뉘는 範疇 體系를 유사한 것으로 보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 즉 天道와 地道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 體系가 아니라 人道가 포함된 3範疇 體系이고, 陰과 陽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 2範疇 體系라는 문제가 있다. 엄연히 範疇의 수가 다른 두 體系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표 4를 보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三才 體系는 천과 지 중심에 人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며 살아가는 人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三才 體系 또한 陰陽과 마찬가지로 2範疇 體系이다.



좌표 2. 陰陽 수직선



좌표 4. 三才 수직선



도표 5. 陰陽과 三才를 통합한 수직선

즉 좌표 1은 -와 +만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2 範疇 體系고, 여기에 중점 0인 표시된 좌표 3 은 3 範疇 體系라고 나누지 않는 것처럼 좌표 4 역시 중점에 人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해서 3 範疇 體系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좌표 1의 수직선에 -와 +만 표시되어 있을 때에도 이미 그 기준인 영점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좌표 2의 陰陽 수직선에도 陰陽을 구분하기 위한 중점, 즉 陰陽을 구분하는 人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三才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 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표 2와 도표 4는 도표 5와 같이 하나의 도표로 합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陰陽 體系와 三才 體系는 집합의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體系라고 생각한다.

2. 三才 思想과 醫療 倫理 背景 哲學

1) '醫療 倫理 背景 哲學'이란 용어의 의미

어떤 倫理적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거쳐 倫理적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가장 理論적이며 보편적 수준의 규범인 倫理 理論에서 倫理원리가 정해지고, 倫理원리에서 倫理규칙이 나오며 이 규칙에 따라 倫理적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¹⁶⁾ 각 단계의 예를

들면, 의학에 흔히 적용되는 倫理 理論으로는 19세기 영국의 哲學者 J.벤담과 S.밀이 주장한 공리주의 理論¹⁷⁾과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의무주의 理論¹⁸⁾이 있다. 醫療 倫理 원리로는 미국의 생명 醫療 倫理학자인 비침과 칠드레스가 그들의 저서 『생명 醫療 倫理학의 원리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에서 제안한 네 가지 원칙 즉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대표적이다.¹⁹⁾ 그리고 醫療 倫理 규칙으로는 정직의 규칙, 신의의 규칙(비밀 보장의 규칙), 성실의 규칙 등이 있다.²⁰⁾

필자가 사용한 '醫療 倫理의 背景 哲學'이라는 용어는 네 가지 단계 중 첫 번째인 倫理 원리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倫理 원리에 해당하는 공리주의 理論이나 의무주의 理論의 근거가 되는 근본적 출발점을 '背景 哲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理論이나 의무주의 理論이 나오는 근본적 출발점을 '背景 哲學'이라 규정한 필자의 주장이 다소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 理論이나 의무주의 理論처럼 인간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理論體系보다 더 포괄적인 理論體系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아무리 포괄적인 理論體系를 정립한다고 해도 공리주의 理論이나 의무주의 理論과 동급의 理論體系일 가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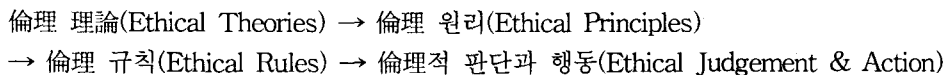


도표 6. 倫理적 판단과 행동의 네 가지 단계¹⁵⁾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三才思想을 도입한다면 기존의 倫理 理論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理論體系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醫療 倫理 背景 哲學으로서의 三才 思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三才 思想은 ‘三’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와는 달리 3範疇 體系가 아니라 宇宙 萬物과 現象을 天(陽)과 地(陰)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2範疇 體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과 地와 人의 세 가지로 나누고, ‘三’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三才라 이름지은 이유는 天(陽)과 地(陰)의 두 종류로 이루어진 宇宙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三才 사상의 가장 핵심은 天(陽)과 地(陰)가 아니라 주체적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人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체적 자유의지라는 말 속에는 능동적으로 宇宙 萬物과 現象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天(陽)이나 地(陰)로 분류하는 주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天(陽)에 속하는 사물이나 현상, 地(陰)에 속하는 사물이나 현상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건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人의 주체적 의지에 따라 天(陽)이나 地(陰)에 배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倫理적 판단과 행동의 네 가지 단계 중 최 상위 단계인 倫理 理論에 적용하면, 공리주의 理論이건 의무주의 理論이건 특정 倫理 理論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倫理 理論을 선택하여 醫療 倫理에 적용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애초에 倫理 理論 體系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주체적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즉 三才 思想에 따르면,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되는 倫理 理論 자체를 인간이 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倫理 理論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 倫理 理論을 선택하여 醫療 倫理에 적용하기 보다는 애초에 倫理 理論 體系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三才 思想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고 해서 신의 의지를 중시하는 신학과 대립되는 思想 體系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신학 體系 자체도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형성한 하나의 哲學 體系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三才 思想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정 倫理 理論을 선택하고 또 형성하는 주체적 자유의지이므로 三才 思想을 도입한다면 공리주의 理論과 의무주의 理論 등 기존의 倫理 理論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理論體系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倫理 理論은 倫理적 판단과 행동의 네 가지 단계 중 최 상위 단계로 倫理 원리와 倫理 규칙의 근거가 되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倫理 理論조차 포괄하는 三才 思想이라면 제반 醫療 倫理 문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醫療 倫理의 背景 哲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醫療 倫理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三才 思想에서 倫理 理論과 倫理 원리와 倫理 규칙을 도출해 내고 또 이를 體系적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倫理적 판단과 행동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醫療 倫理들 및 그 근거가 되는 倫理 理論들에 대한 體系적 고찰과 그 대안으로서의 三才 思想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結 論

三才 思想이 醫療 倫理의 背景 哲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三才 思想에서 天道는 形而上學的인 것을 포괄하는 範疇 집합의 이름이고, 地道는 形而下學的인 것을 포괄하는 範疇 집합의 이름으로, 天道와 地道는 宇宙 萬物과 現象을 둘로 나누어보는 2範疇 體系를 의미한다.

2. 三才 思想에서 人道란 天道와 地道로 이루어진 宇宙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원소로 하는 範疇 집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人道는 三才 思想의 人道는 天道와 地道와 동일 선상의 範疇 집합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3. 三才 思想은 宇宙 萬物과 現象을 둘로 나누어보는 2範疇 體系에 분류의 기준 및 중심이 함께 설명된 體系이다.

4. 陰陽은 宇宙 萬物과 現象을 둘로 나누어보는 2範疇 體系인데, 여기에는 陰陽을 분류하고 배속하는 기준이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결국 陰陽과 三才 思想은 중점을 드러내 표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같은 範疇 體系이다.

5. 三才 思想은 '삼'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와는 달리 3範疇 體系가 아니라 宇宙 萬物과 現象을 天(陽)과 地(陰)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2範疇 體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과 地와 人의 세 가지로 나누고, '三'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三才라 이름 지은 이유는 天(陽)과 地(陰)의 두 종류로 이루어진 宇宙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三才 思想의 가장 핵심은 天

(陽)과 地(陰)가 아니라 주체적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人이다.

6. 三才 思想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정 倫理 理論을 선택하고 또 형성하는 주체적 자유의지이므로 三才 思想을 도입한다면 공리주의 理論과 의무주의 理論 등 기존의 倫理 理論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理論體系의 정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倫理 理論은 어떤 倫理적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 거치는 倫理 理論 → 倫理 원리 → 倫理 규칙 → 倫理적 판단과 행동 의 네 가지 단계 중 최 상위 단계로 倫理 원리와 倫理 규칙의 근거가 되므로 倫理 理論조차 포괄하는 三才 思想이라면 제반 醫療 倫理 문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醫療 倫理의 背景 哲學으로 활용될 수 있다.

7. 醫療 倫理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三才 思想에서 倫理 理論과 倫理 원리와 倫理 규칙을 도출해 내고 또 이를 體系적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倫理적 판단과 행동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醫療 倫理들 및 그 근거가 되는 倫理 理論들에 대한 體系적 고찰과 그 대안으로서의 三才 思想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8. 三才 思想 외에도 五行, 八卦 思想 등 醫療 倫理 背景 哲學으로 적용할 만한 東洋哲學의 思想 體系가 많다. 그러므로 여타 東洋哲學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1. 정병석, 周易의 三才之道와 天生人成, 儒教 思想研究 第24輯, 2005
2.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3. 臟腑의 八卦 配屬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제 17권 1호, 2004
4. 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

대한예방의학회지 제11권 제1호(2007년 6월)

- 부, 1998
5. 송재국, 周易의 三才思想과 人間理解, 東西哲學研究(第 17號), 1999
6. 김중호, 의학倫理란 무엇인가, 바오로딸 출판사, 서울, 2003
7. 구영모, 생명醫療倫理, 도서출판 동녘, 서울, 1999